

■ 500번째 헌혈 앞둔 '헌혈왕' 손 흥 식 씨

24년간 한달 두번꼴... 25만cc 헌혈



'조건없는 생명나눔' 실천
신장 한쪽·간 절반도 기증

지난 24년 동안 헌혈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손흥식(57·광주시 북구 용봉동)씨가 오는 16일 500회째 헌혈을 한다. 국내 헌혈 기네스 보유자인 손씨는 2주에 1차례 성분헌혈(혈액의 일부 성분만을 분리해 채혈)과 두 달에 1번 전혈(혈소판·혈장 채혈)을 계속해왔다. 한번에 5백cc를 헌혈했으나 그동안 총 25만cc를 헌혈한 셈이다.

지난 1994년 12월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김모(당시 36세)씨에게 자신의 신장을 무상 기증했고, 2002년 12월에는 간암으로 투병중인 오모(당시 59세)씨에게 간 이식을 해주기도 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94년 대통령 표창(신한국인)을 받았으며, 2003년엔 '광주시민대상'(사회봉사 부문)을 수상했다.

손씨는 "헌혈할 때마다 내 몸안의 탁한 게 빠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헌혈이며 가져가는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손씨는 "돈 안들이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곧 헌혈"이라며 "건강만 허락된다면 헌혈 법정기준인 65세까지 700회를 달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안순일 광주시 교육감 수필가 등단

교사 시절 회고 '사랑의 교실' 현대문에 당선

안순일(62·사진) 광주시 교육감이 수필가로 등단했다. 안 교육감의 수필 '사랑의 교실'이 격월간 문예지 '현대문예'(발행인 황하택) 신인문학상 수필부문에 당선된 것. 작품은 '현대문예' 2007년 1~2월호(통권 36호)에 실렸다. '사랑의 교실'은 안 교육감이 20여년 전 전남의 어느 시골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의 한 학생을 추억하며 쓴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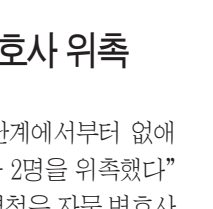


지만 문학 활동을 통해 지난 세월을 반추하고 보다 성숙된 삶의 여유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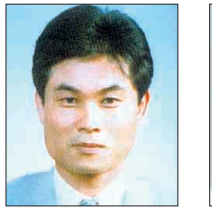
심사위원단(김학·이원복·강환식)은 "무너져버린 교편, 스승과 제자가 사라진 시대에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고 기르는 교육의 기쁨을 되찾게 해 준 작품"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안 교육감은 당선 소감을 통해 "그동안 묵혀둔 새로운 에너지를 불려일으켜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리며 늦었지만 문학 활동을 통해 지난 세월을 반추하고 보다 성숙된 삶의 여유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서해해경 자문변호사에 박도영·문광명 변호사 위촉

박도영(58)변호사와 문광명(38)변호사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제 법률 자문 변호사로 위촉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국제 성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박도영 변호사> 방첩이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문광명 변호사> 국제 분쟁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없애기 위해 자문 변호사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서해 해경청은 자문 변호사 위촉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피해구제 안내 및 법률 상담 등도 확대할

국정원 광주지부 채용 설명회

국가정보원 광주지부가 10일 전남대와 조선대에서 채용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국정원 관계자가 바림직한 인재상과 전형 절차, 채용 후 교육제도 등을 설명하고 대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종록 조선대 취업본부장(경영학과 교수)은 "설명회 이후 220명의 참석 학생들의 질문이 쇄도해 중간에서 끊을 정도로 성황리에 끝났다"며 "조선대 출신 학생이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역안배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명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에서는 지난 2일부터 전국 61개 대학을 대상으로 순회 채용설명회를 개최 중이며, 대학별로 300~400명의 학생이 참석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최권민기자 cki@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구보우씨 차남 회봉군 정분숙씨 장녀 김은애양=14일(토) 낮 12시 KT&G 웨딩홀.
- ▲신국호(전남도 국제관계 자문대사)씨 장남 재민(엔사이드소프트웨어 대표)군 진정운씨 차녀 정혜양=14일(토) 오후 1시 서울시 외교관보연구원 1층 대강당.
- ▲김인수(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경리담당)씨 장남 권(변리사)군 양태신씨 차녀 은성(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연구사)양=14일(토) 오후 1시 광주양림교회.
- ▲박진수씨 장남 현철군 김정열씨 차녀 진하양=14일(토) 오후 1시 상무리초컨벤션 웨딩홀 1층 아이비실.
- ▲박기태씨 장남 진홍군 이근수(광주시 서구 정보홍보실장)씨 장

- 녀 유경양=15일(일) 오전 11시30분 목포시 목포웨딩칼리스 1층 라벤더홀.
- ▲남정우씨 장남 동호군 전용덕씨 장녀 은숙양=15일(일) 낮 12시30분 호텔 무등파크 4층 컨벤션홀.
- ▲김옥순씨 차남 정혁(변호사)군 이강선씨 차녀 희정(고려중 교사)양=15일(일) 오후 1시 신양파크호텔.
- ▲문병대씨 장남 태곤군 김귀만(광주전남발전연구원 행정실장)씨 장녀 수연양=15일(일) 오후 1시 서울대 호안교수회관.
-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지정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

- 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 ▲비틀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 동창·동문회**
- ▲복성중 제 11회 동창회(회장 이

- 석영) 월례회=11일(수) 오후 7시 맛갈정. 226-1410
- ▲재광 전주교·복중 동문회(회장 최광남) 모임=12일(목) 오후 7시 바다원. 373-4100
- ▲복성중 제 12회 동창회(회장 서운호) 월례회=12일(목) 오후 6시30분 장수회관. 232-1049
- ▲복성중 제 13회 동창회(회장 박중우) 월례회=13일(금) 오후 6시30분 유황촌. 511-3360
- ▲대촌중 제 11회 동창회(회장 송운근) 봄 야유회 및 체육행사=14일(토) 오전 10시 대촌중 교정. 011-610-4706
- ▲능주중 제 11회 동창회(회장 이체승) 모임=14일(토) 오후 6시 상무리초컨벤션 1층 아이비홀. 374-8181
- ▲제 22회 광주상고 동창회(회장 노관숙) 무등산 등산대회=14일(토) 오전 9시30분 증심사 버스정류장. 011-646-1373
- ▲진흥고 총동창회(회장 양해인)고 이한열 열사 20주기 흉상건립 임시기사회=16일(월) 오후 7시 신도

- 불이. 019-609-7779
- ▲광주상고 제 12회 동창회(회장 전성수) 정기모임=17일(화) 오후 6시30분 맛갈정. 226-1410
- 모임**
- ▲광주시 지방행정동우회(회장 나무석) 산업시찰=11일(수) 오전 10시 동우회 사무실 앞. 371-1117
- 종친회**
- ▲곡부공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공양진) 월례회=12일(목) 오후 6시 장성군 남면 분향리 시목마을 종친회장 자택. 011-606-7900
- ▲채씨 중앙종친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채희식) 정기총회=14일(토) 오전 10시30분 광주 YWCA. 016-603-9137
- ▲평강채씨 광주·전남 도 종친회=14일(토) 오전 10시 광주 YWCA.
- ▲평산신씨 광주·전남 회수회 정기총회=15일(일) 오전 11시 광주

- 관광호텔 10층 대연회장. 225-7935
- 항우회**
- ▲재광 장흥군 항우회(회장 안태경) 정기총회=13일(금) 오후 7시 광주그랜드호텔 11층 연회장. 011-609-6975
- 부음**
- ▲김형담씨 별세 철수(재캐나다)·천수(자영업)·옥수(ECC회원장)·재희(도애가)씨 부친상 정몽기(조선일보 호남취재본부장)씨 빙부상=발인 12일(목) 서울 고려대병원 장례식장. 02-921-1099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납품특별분양
분양 (062)521-1100

문 블러드굿 주연 영화 美 전역 개봉



패스파인더...8월 한국 개봉

한국계 혼혈배우 문 블러드굿이 여주인공역을 맡은 영화 '패스파인더(Pathfinder)'가 오는 14일 미국 전역에서 일제히 개봉된다. 스타벨스닷컴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대륙이 발견되기 500여년전에 '얍파노악'이라는 인디언부족에 흘러든 10살짜리 바이킹족 소년이 성장한 뒤 신대륙을 노리는 바이킹족에 맞서는 내용을 담은 '패스파인더'는 제작비 4천만 달러가 투입된 액션 어드벤처 영화다. 이 영화에서 블러드굿은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는 인디언 여주인공역을 맡았으며 외모에서 풍기는 동양적 신비로움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화는 이미 러시아에서 개봉해 36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독일과 멕시코에서도 2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전세계에서 1천만 달러 이상 벌어들였고 한국에서는 오는 8월 23일개 개봉될 예정이다.

고은 시인 '제 5회 영랑시문학상' 수상



시상식은 축제 첫날인 21일 오후 열린다.

계간 '시와시학사'가 주최하는 영랑시문학상 올해 제5회 수상자로 고은 시인이 10일 선정됐다. 수상시집은 '부끄러움 가득'. 이 상은 영랑 김윤식(1903-1950)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상금은 1천만원이다. 한편 '시와시학사'는 21-23일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생가에서 제2회 영랑문화제를 개최한다.

"北 동포에 어머니·공각지 들려주고 싶어요"

장윤정, 평양 공연 추진

'트로트 퀸' 장윤정(27)이 평양 공연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소속사인 인우프로덕션은 10일 "장윤정의 평양 공연을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지난해 6월 광주 조선대 학교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통일대회에서 공연한 장윤정의 노래에 북측 참석자들의 반응이 좋아 추진 의지를 갖게 됐다. 평양 공연이 성사되도록 지인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북측 단장인 김영대 민족화해협력의총장과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에게 "장윤정의 평양 공연을 추진하자"는 "깜짝 제안"을 했다. 장윤정이 부른 '어머니' '공각지' 등의 히트곡 공연이 북측 대표단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덕택. 김영대 단장은 이 장관의 제의에 "그 가수는 노래를 너무 흔들지 않고 해서 좋더라. 장담도 좋고"라고 화답했다. 지금껏 평양에서 단독 공연을 펼친 가수는 이미자·조용필·김연자 등. 인우프로덕션은 "장윤정이 평양에서 공연한다면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녀들의 수다' 사오리는 이중국적

한국명 장은주...네티즌 논란

KBS 2 '미녀들의 수다'의 인기출연자인 사오리 장이 이중 국적 논란에 휩싸였다. 사오리는 이 프로그램에서 일본인 유학생으로 소개됐으나 어머니가 한국계로 일본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또 사오리는 장은주라는 한국이름으로 미니홈피를 운영하고 있다. 제작진은 처음부터 이를 알고도 일본인이라고만 사오리를 소개했다. 이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과 "한국 국적이 있더라도 일본 문화 속에서 성장했다면 일본인이냐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네티즌도 많다. 앞서 사오리는 '개갈다'는 표현으로 곤혹을 치렀다. 사오리는 지난 8일 방송에서 "일본에서는 되지만 한국에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 "밥 먹을 때 일본에는 밥그릇 들고 먹어야 돼요. 한국에서 하면 개, 개갈잖아요"라고 답했다.

내방

▲문용철씨(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농협전남본부, 방문 고객에 '봄꽃 나눠주기'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 상호금융팀 직원이 10일 농협을 방문한 고객에게 봄꽃을 증정하고 있다. 농협은 고객과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10~13일 고객들에게 '봄꽃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